

## 大學教育과 對話의 哲學



弘益大 總長 閔 庚 天

### I

“大學之道는 在明明德”이라고 합니다. 밝은 德을 밝혀가는 데에 教育의 理念을 둔 것은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아티카의 哲人들이 學生들과 對話를 나누는 아테네 西北쪽에 있었다는 ‘아카데미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大學教育이 결국 國民을 위하여 至善에 있음은 (“大學之道…在親民 在止於至善”) 역시 다름아닌 德論인 플라톤의 「國家論」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政治學」의 기본 이념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大學은 한 世紀도 채 못됩니다만 西歐에는 5~6백 년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세기 전반에 그리스敎會와 로마敎會의 재통일로 그리스로부터 이태리에 학자들이 대거 상륙을 함으로써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피렌체(1450년대)와 로마(1460년대)에 아카데미아가 생겼습니다. 소르본느, 옥스포드, 보로냐에 學僮들이 모여 함께 기거하면서 토론을 한 대학겸 기숙사인 학교(Collegium academicum)는 그보다 훨씬 앞서 12세기경일 것입니다. 서양의 경우 대학교육의 基礎科目은 중세기초의 七自由學科(Septem artes liberales)였습니다. 이 학과가 오랜 세월을 두고 커리큘럼을 바꾸면서 理性과 信仰, 學問의 自由와 敎權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중세 敎회내에 설치된 異端者審問法廷(inquisition)에서 많은 지성인들이 獄苦를 치루고, 처형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여서 좀 어설피기도 합니다만 서양 사람들 가운데에는 학문의 殉敎者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그 한 예가 됩니다.

第一原因으로서의 神性的 假說이나, 또는 ‘最高善’(Summum bonum)을 인간 의지의 對象으로 삼는다는 것은 월레 생각하는 버릇이 합리적인 서양인들에게는 당연지사 같았습니다. 세계에 있어서 ‘最高善’의 성취는 道德律에 의해 규정될 意志의 必然的 對象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實踐的 知 또는 實踐的 理性을 단순히 理論的 知 또는 理論的 理性 밑에 종속시켜 참다

은 智慧를 공허한 詭辯으로 만들지는 않았읍니다.

소크라테스는 학교에 坐定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市場이나 路上을 배회하며, 즉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德을 가르쳤읍니다. 是是非非(Sic et Non)를 가리는 討論(Disputatio) 형식은 물론 對話形式입니다. 그리고 眞理를 論證하는 방법으로서의 辯證法(dialektike)의 구조 역시 대화 형식입니다. 변증법의 源流인 플라톤의 著書는 소크라테스와의 對話를 뛰어난 劇作家的 솜씨로 쓴 것입니다. 그의 문체는 喜劇的이며 抒情詩的인데 文章家로 봐도 고대 그리스에서 제일 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對話의 능수였읍니다.

## II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실정을 보면 강의실 안에서나 아니면 그밖의 학생 과외활동에 따른 학생 지도면에서나 對話가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소크라테스가 앉아서 학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녔듯이 孔子도 굴뚝이 검게 그슬리도록 한 군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었나(孔子無黔突) 보고, 墨子도 앉은 자리가 더워질 때까지 한 군데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었나(墨子無煖席) 봅니다 淮南子, 脩務訓).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교수는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 말을 걸어야 할 줄 믿읍니다. 教授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 教授 혼자 講述하는 방법, 學生과 問答하는 방법, 그밖에 反復(repetition), 討論(disputation), 略式講義(cursory), 特別講義(extraordinary), 公開試驗(conventus), 口述試驗(rigorismus) 등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이 유독 탁월하다고 지적할 수는 없고, 教授法은 어디까지나 교수의 제량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는 教授를 정의하건데 교수란 학생의 생각의 進行을 質問에 의해, 즉 학생 마음 속의 素質을 일정한 개념에 의해 開發해 줌으로써 지도하는 학생의 思想의 産婆라고 한다면, 對話形式的 教授法을 통해 어떻게 질문을 해야 좋을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豫備的 判斷을 위한 여러 規則을 깨달을 수 있도록 方法的으로 誘導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해집니다. 示威學生들의 입에서도 대화를 요구하고 나올 만큼 여러 군데에서 대화는 거의 斷絶狀態여서 애석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父母子息간에 대화가 없음으로 인해 緊張, 家族病理(family pathology) 내지 家族解體(family organization) 등등 사회의 不安定要素들이 날로 늘어나면서 문제는 복잡해지고 심각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對話는 오늘날 우리 大學社會에서뿐만이 아니라 널리 集團과 文化라는 큰 問題領域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大學教育의 本은 德입니다(德者本也). 德에 관한 實踐의 思惟와 行爲는 實踐的 言語의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形式論理가 전부는 아닌 줄 압니다. 형식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 實踐的 理性的 立法 속에 인정된 意志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곧 實踐的 思惟의 중요한 형식입니다. 이 의지는 형식논리의 차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意志決定으로부터 行爲로 옮겨지는, 즉 決斷이 實踐的 行爲로 전환되는 意志의 現實性입니다. 교수의 形式的 原理는 이 의지의 現實性的 發見에 있다고 보며, 이 발견은 對話의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修德(exercitiorum virtutis), 곧 修道는 교육의 목표입니다(修道之謂教).

修德修道가 대학교육 이념의 本質이라고 한다면 아마 진부하다고 하실 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만큼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집단의 構造概念, 類型構成의 基準이 달라짐과 동시에 대학의 커리큘럼도 달라져 가고 있고, 社會變動의 要因들은 대학교육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集團으로서의 대학 사회의 文化的 構造도 늘 조용한 것만은 아니며 자연 葛藤과 苦惱를 느끼곤 합니다. 對話를 교수와 학생과의 中間項으로서, 大學教育 내지 文化的 機能實現의 場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은 社會概念 가운데 집단 자체의 機能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얘기일 것입니다. 敎育은 개개인의 퍼스넬리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集團에 대해서도 指向體系(Systems of orientation)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敎育과 文化的 機能實現에 있어서 精神分析學者나 社會學者들이 지적하듯이 퍼스넬리티 形成과 社會化的 의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각 대학들이 몹시 陣痛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일부 시위학생들이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대학의 存在와 持續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인 合理的 思惟와 行動의 標準의 體系가 흔들릴 만큼이나, 대학 敎育文化的 合理化體系에 異狀이 생기고, 合理的 價値體系를 가진 대학 문화가 위협을 받을 만큼이나 그 퍼스넬리티에 문제가 있습니다. 퍼스넬리티 形成과 行動의 社會的 準則은 애당초 大學이 아닌 家庭이나 社會의 文化的 條件(Cultural conditioning) 내지 家庭學習에 달려 있다고 보면 오늘날 많은 대학들이 한결같이 겪고 있는 苦惱를 대학 자체로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형편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퍼스넬리티는 앞서 말씀드린 對話를 통해 고쳐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未來와 결부시켜 보고 싶습니다. 참을성이 필요한 이 기대는 懲罰과 苦痛 대신 아름다운 報酬로, 보수는 褒賞으로 바뀌리라는 간절한 기대입니다. 이 기대를 위해 우리는 학생들을 앉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나서 말을 걸어야 좋겠습니다. 대화의 形式論理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定言命法에 의해 지시된 實踐의 思惟가 취할 行動의 意志規定의 根據를 함께 對話를 통해 꾸준히 찾으며, 대화 속에 道德的 格率을 끌어들이어 學生指導 역할을 다해야만 그 대화는 說得力이 있을 것입니다.

行動의 동기와 기초는 이성보다 오히려 感情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쉽사리 폭발하기 쉬운 감정, 그러나 동시에 內的 價値의 감정 속의 直觀的 思惟를 實踐理性으로 유도할 實驗手段으로서의 對話는 敎育의 品位를 한층 높여 줄 것입니다. 대화는 自然現象으로서의 人間(Homo phaenomenon)으로 하여금 道德의 내지 思惟의 人間(Homo noumenon)의 品位를 갖게끔 해 줄 것입니다. 인간의 睿智의 自然性은 그가 우선 道德의 自然일 경우에 한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敎育의 理念은 곧 德論이라는 소신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누차 대화의 형식논리를 넘어서 定言命法的인 意志를 學生들의 마음에 심어 심지가 굳은 인간을 訓育해 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지는 義務의 法則的 性格에 의해 비로소 규정되며, 또한 동기가 됩니다. 따라서 義務가 義務이기 때문에 義務를 다하려 드는 意志가 결정될 때 우리는 그 意志를 善한 意志이며 行動이라고 말합니다. 實踐的 命法에 따르는 對話에는 어떤 形式的 規準이란 없고 形式이 있다면 그것은 實踐的 形式뿐입니다.

금년 들어 일부 성난 시위 학생들의 口號는 대체로 政治的인 것이었으며, 그 손에는 돌, 화염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慨嘆해 마지않을 일입니다. 그 학생들이 나타내는 것이 社會的 眞實 대신 남

의 權利를 훼손하는 虛偽, 道德的인 것 대신 不道德한 것, 正直 대신 貪慾, 非理라는 것들만이 눈에 거슬린다고 하는 얘기라면 그것은 道德的 存在로서의 인간의 義務의 背反에서 招來된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教育의 根本理念으로서의 德論은 그래서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社會惡의 因果律은 自然法에 의해 演繹될 수도 없으며, 理性은 惡과 偽善의 길을 택해 걷는 性癖의 인간을 바로잡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마는, 어쨌든 辯證論의 根源的 形式인 對話를 통해서 진실과 허위를 가려낼 수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만치 社會 各계 各층에서의 對話는 필연적으로 요청됩니다. 理性의 기관인 말로 하면 될 일을 暴力으로 해결하려 드는 데엔 근본적으로 對話가 斷絶됐기 때문이라고 해도 잘못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화는 대학 세미나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가족성원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곳곳에서 필요로 합니다. 요근래 소위 意識化된 학생들의 組織化戰術(Organizational Weapon)과 돌팔매질의 對抗暴力, 교직원 구타, 기물 파괴, 放火 등의 경향에는 인간의 非人格化 현상이 노골화되어 몹시 우려되는 바입니다. 사람은 法的 狀態에 있어서 理性法則에 따른 最高의 道德的 立法者입니다. 道德的 有機體로서의 國家理性은 道德義務라고 바꾸어 말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 Ⅲ

高度의 精神文化는 日常的 文化를 母胎로 하고 있으니만치 우리 국민의 평소의 生活信條, 道德的 慣習 등이 자못 중요합니다. 道德義務觀念에 근거를 둔 대학의 특히 國民倫理教育은 생활과 정신의 분열을 精神的 領域에서 克服해야 하는 큰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의 國民倫理教育은 民族固有의 힘의 創造的인 發展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大學人들은 오늘날의 事態를 直視하고 단호한 對策을 강구해야겠는데, 그 對策이란 우리의 民族精神이 스스로의 存立을 위협당하는 모든 경우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硝煙彈雨 속에서만은 아니고 우리의 경우는 教育一線에서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血緣이 共同體 紐帶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思考와 行動에 있어서 같은 言語를 쓰는 文化共同體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영어를 쓰는 미국인은 영국인이 아닙니다. 독일어·불어·이태리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인은 그렇다고 해서 독일인, 프랑스인, 이태리 사람이 아닙니다. 海外에 거주하는 그 무수한 中國人들은 그들의 言語를 잊지 않으며 子孫들과의 對話를 통해 전수합니다. 특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의 경우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는 유감스럽게 그만 못합니다. 文化는 民族的 性格과 관련, 民族 構成員간에 言語를 통해 相互理解로부터 비로소 형성·발전되어 갑니다.

우리는 言語가 같은 文化共同體 속의 一員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 言語 속에 民族的 建전한 中核이 유지되어 온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言語로 對話의 길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